국립극단 연극 〈벚꽃 동산〉 관람 안내



2023.5.4.(목) - 5.28.(일)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작:

안톤체호프 Anton Chekhov

연출: 김광보

푸른티켓

국립국단 1644-2003 인터따크 1544-1555

무대 박상봉 - ²⁶ 조명 김창기 의상 유미양 음악 옵브레 사운드 목소 문장 이동민

번역 오종우

백지원 이승주 정슬기 이다해 강신구 윤성원

소품 정윤정

안무 이경은

송칠호 홍지인 박상종 장석회 바지호

智豐

벚꽃동산

05.04.-05.28.

공연제목: 〈벛꽃 동산〉

작 안톤 체호프 Anton Chekhov, 연출 김광보

공연기간: 2023.5.4.(목) - 5.28.(일)

공연장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공연시간: 평일 19시30분, 토·일 15시, 화요일 쉼

※ 5.5.(금) 어린이날 15시

티켓가격: R석 6만원, S석 4만5천원, A석 3만원

- 대학생 및 청소년 40%

10인 이상 학생 단체 1만5천원 (별도 문의)

관람등급: 14세 이상 관람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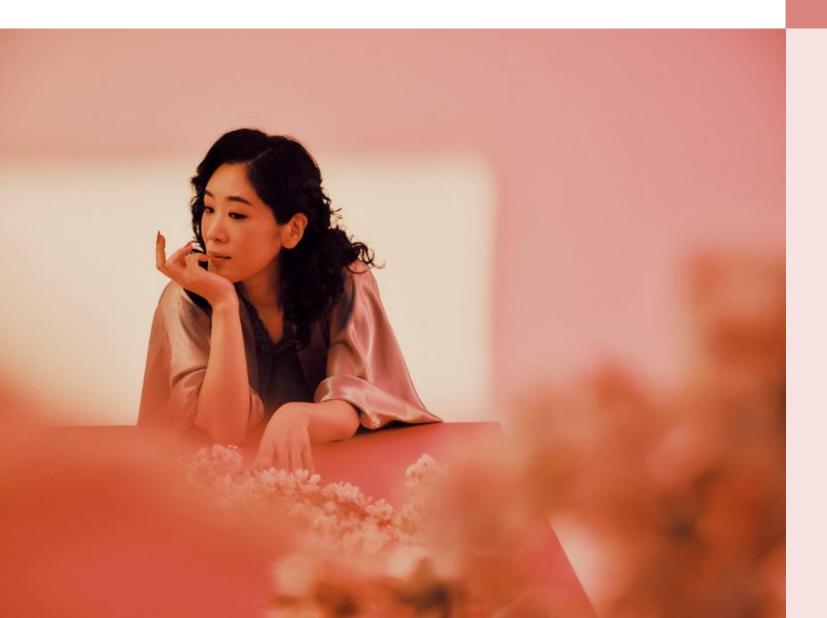
소요시간: 110분(인터미션 없음/변동될 수 있음)

예술가와의 대화: 5.14.(일) 공연 종료 후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연출가 김광보가 연출 인생 30년 만에 세계적인 사실주의 작가 안톤 체호프를 만난다.

〈벚꽃 동산〉은 사실주의의 대가 **안돈 체호프의 유작이자 4대 희곡으로 꼽히는 명작**으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유일한 도피처 벚꽃 동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그려낸다.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외면하는 이들을 그린 안톤 체호프의 텍스트에 연출가 김광보의 깊이 있는 분석이 더해져 격변하는 사회 속 우리의 모습을 무대에 생생하게 담아낸다. 5년 만에 연극에 복귀하는 배우 백지원이 벚꽃 동산의 여지주, 라네프스카야로 분하여 찬란했던 벚꽃 동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안톤 체호프의 4대 희곡 중 하나, 유작이자 마지막 장막극 〈벚꽃 동산〉



나의 벚꽃 동산이여, 안녕!

돌아올 곳이라곤 벚꽃 동산이 전부였다. 나의 인생, 나의 절음, 나의 행복. 이제야 겨우 돌아왔는데, 벚꽃 동산을 떠나야 하는 기로에 서고 말았다. 오롯이 지켜내고 싶은데 지켜낼 수가 없다. 벚나무가 베어진다고요? 결코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만이 남았다.



결정하세요. 단언하건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모두가 듣지 않는다. 벚꽃 동산을 유일하게 지켜낼 방안을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 결국 벚꽃 동산이 팔리게 될 그 날이 머지 않았다.



시놉시스

몰락한 귀족이자 벚꽃 동산의 지주 라네프스카야. 그녀의 영지이자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벚꽃 동산은 백과사전에 실릴 정도로 유명하고 아름다웠으며, 이곳에서 그녀와 가족들은 대대로 부를 축적하며 귀족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녀는 6년 전 떠났던 고향에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고 벚꽃 동산은 재정 위기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 집안 농노의 자식이었지만 신흥사업가로 성공한 로파힌은 해결방법으로 별장 임대를 제안하지만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마침내 벚꽃 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8월 22일이 다가오는데..

만드는 사람들

작 안톤 체호프 연출 김광보

 출연 백지원 이승주 정슬기 이다혜 강신구 윤성원 곽은태 하지은 송철호 홍지인 박상종 장석환 박진호



(왼쪽부터) 윤성원, 이다혜, 백지원, 정슬기, 이승주

문의 및 예매

- 개인예매: 국립극단 콜센터 1644-2003 (평일 13-20시, 주말 10-17시 / 12-13시 점심시간) 국립극단 홈페이지 <u>www.ntck.or.kr</u>
- 단체예매: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02-3279-2263, song@ntck.or.kr (평일 10-17시) 학생 단체 전석 1만5천원 (만 24세 이하 혹은 대학교 재학생) 동일회차 10인 이상 예매 및 관람 당일 티켓 일괄 수령 必
- 배리어프리 회차: 5.20.(토), 5.21.(일), 5.22.(월) ※ 해당 회차 단체 예매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02-3279-2263) 부탁드립니다.